



“기술 혁신으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동행하다.”

정몽구 명예회장이 현대차그룹을 글로벌 완성차 업체로 일궈냈다면 정의선 회장은 전동화, 자율주행 등 기존 자동

차 기업의 핵심 역량 확보를 넘어 로봇틱스, 미래 항공 모빌리티, 수소에너지 솔루션 등 새로운 분야에서 과감하게 모빌리티의 한계를 넓혀가고 있다.

“인류 위한 안전한 친환경 이동수단 구현”

완성차 넘어 모빌리티 솔루션 혁신... 100년 기업 꿈꾼다

정몽구 명예회장이 현대차그룹을 글로벌 완성차 업체로 일궈냈다면 정의선 회장은 현대차그룹을 세계적인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있다.

정 회장은 지난 2020년 10월 14일 전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룹의 지휘봉을 잡았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정 회장은 위축되지 않고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팬데믹에도 신차 출시 지속 소형 모빌리티 플랫폼 공개 자율주행 가시적 성과 달성

현대차는 신형 투싼을 비롯해 아반떼, 스타리아, 제네시스 G80, 제네시스 GV70 등 신차들을 예정대로 출시했다. 기아도 쏘렌토, 카니발, K8 등의 신차를 선보였다. 특히 지난해에는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E-GMP 기반의 순수 전기차 모델인 아이오닉 5와 기아 EV6 등을 출시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브랜드 인지도는 물론 기술 경쟁력도 인정받았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기 전망이 불안한 만큼 현대차와 기아가 신차 출시 시기를 늦출 것으로 봤지만 현대차그룹은 이를 뒤엎는 선택을 했다.

정 회장은 지난 2020년 회장 취임사에서 “인류의 평화로운 삶과 건강한 환경을 위해 성능과 가치를 모두 갖춘 전기차가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이동수단을 앞장서서 구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 회장은 현대차그룹이 이같은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50년을 넘어 100년 이상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 약 1조를 투자해 세계적 로봇 기업인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한 것이 대표적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6월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를 완료했다. 이후 현대차그룹은 스포츠에 로봇틱스의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AI 프로세싱 서비스 유닛’을 접목했다. 스포츠 산업 현장에서 좁은 공간과 계단 등을 자유

롭게 이동하며, 유연하게 관절을 움직여 사각지대까지 파악한다. 지난해 9월부터 경기 광명시 기아 오토랜드 광명 현장에 시범 투입해 공장 내부의 위험을 감지하고 안전을 책임지도록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첨단 로봇틱스 기술이 집약된 소형 모빌리티 플랫폼 ‘모베드’ (MobED·Mobile Eccentric Droid)를 공개했다. 낮고 평평한 보드에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4개의 엑센트릭 휠이 장착됐다. 각 바퀴마다 탑재된 모터 3개가 개별 바퀴의 동력과 조향, 보드의 제어 기능을 수행한다. 덕분에 비탈이나 요철에서도 보드를 수평으로 유지해 배송이나 안내 서비스에 최적화돼 있다.

자율주행에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달 독일에서 열린 ‘IAA 모빌리티 2021’에서 전용 전 기차인 아이오닉 5를 기반으로 모셔널과 공동 개발한 로보택시의 실물을 처음 공개했다.

현대차그룹은 하늘을 나는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이동의 방식을 향유하는 목적기반차량(PBV)의 기술 개발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인간에게 다른 이동 경험과 삶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우선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UAM 사업에서는 업계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UAM 법인 슈퍼널 설립, 세계 최초로 영국 코번트리에 UAM 수직

이착륙장(버티포트) ‘에어윈’을 세웠다. 에어윈은 승객 라운지와 카페, 소매점, 물류 허브, 전기·수소 항공기 격납고, 보안심사대, 지휘통제실 등으로 구성됐다. 크기는 1579㎡이며 수직이착륙기(eVTOL)와 승객용 항공 택시, 물류용 드론 등의 이착륙이 가능하다.

슈퍼널은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로스앤젤레스 등과도 협업을 통해 AAM 생태계 공동 구성에 나선 만큼 후속 에어윈구축도 기대된다. 슈퍼널은 2028년 첫 eVTOL을 선보이며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5년 내에 한국·미국·독일·호주 등 세계 주요 도시에 200여개의 에어윈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다. 현대차그룹은 2040년 1700조원대로 전망되고 있는 전 세계 UAM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PBV는 기아를 중심으로 기술 개발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기아는 지난달 중순 이커머스 기업 쿠팡과 손잡고 쿠팡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PBV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을 적용해 적재 효율을 높이고 안전 장치를 탑재한 쿠팡 전용 PBV를 선보인다. 이를 통해 유통·물류 업계의 배송 환경 혁신을 일으킨다는 계획이다. 25년 만에 경기도 화성에 PBV 전용 공장도 짓는다.

글로벌 PBV 시장은 연평균 33%씩 성장해 2025년에는 130만대, 2030년에는 700만대 규모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30년에는 PBV가 글로벌

신차 판매량의 약 25%를 차지할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수소경제 ‘퍼스트 무버’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특히 정 회장은 ‘2040년 수소에너지 대중화’를 선언하며 국내외를 중흥무진하며 수소경제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2020년 수소연료전지시스템 브랜드 에이치투(HTWO) 출



퍼스널 모빌리티 이미지

시를 시작으로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에 해외 첫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생산공장인 ‘HTWO 광저우’ 건립에 나섰다.

또 정 회장은 국내 재계에서도 수소 리더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지난해 최대원 SK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등과 만남을 갖고 3월에는 수소위원회 설립해 수소동맹을 구축했다. 그 결과 지난해 9월 한국판 수소위원회로 불리는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을 발족했다.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엔 현대차그룹을 비롯해 SK·포스코·롯데그룹 등 15개 기업이 참여했다.

수소분야의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는 건 정 회장의 또 다른 구상이다. 정 회장은 약 1조 3000억원을 투자해 현대모비스 인천·울산공장을 세워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연산 10만기 체제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현대차그룹은 차량용 반도체 공급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등 미래차 핵심성장 동력 확보에 속도를 높인다. 현대모비스

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협력 생태계를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국내 13개 전문 개발사들과 함께 차량용 소프트웨어 기술 국산화를 위한 오픈 플랫폼 기반 협력 생태계를 구축했다.

정 회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에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임직원과의 격의없는 소통을 통한 수평적 조직 문화를 확산하는 것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글로벌 수소경제 ‘퍼스트 무버’ 자리 반도체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박차 정의선 회장 “임직원 모두 개척자”

정 회장은 “전 세계 사업장의 임직원 모두가 ‘개척자’라는 마음가짐으로 그룹의 성장과 다음 세대의 발전을 위해 뜻을 모은다면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임직원의 귀중한 역량이 존중받고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소통과 자율성이 중시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선대회장과 명예회장의 업적과 경영철학을 이어받은 정 회장은 “미래를 열어가는 여정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안되면 되게 만드는’ 창의적인 그룹 정신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힘을 모아 노력하면 충분히 이루어 낼 수 있다”고 강조한 만큼 20년 뒤의 현대차그룹의 모습이 기대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인공지능 서비스로봇 DAL-e.



현대차그룹은 2021년 로봇 기업 보스턴다이내믹스 인수했다..